

제428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19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국가유산청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정된 안건

-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3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3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국가유산청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3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관님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이 되셨고 차관님 두 분과 문화재청장님의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시니까 우리 문체위 상임위가 아주 든든해 보입니다.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부장관 먼저 인사하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문체위 위원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K-컬처는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 아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여 K-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께서 인사하시고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받은 김영수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차관직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계 일류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께서 인사하시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된 김대현입니다.

국민 소통 분야, 체육·관광 분야에서 좋은 정책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께서 인사하시고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정말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지금 K-컬처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을 총괄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전통문화와 국가유산의 독보적인 가치를 세계의 인구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네 분께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문체위 활동이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오경 간사님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박정하 간사님을 체육관광법안심사소 위원장으로, 박수현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배현진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각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의 출판 및 유통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관례에 따라 심사기간을 2026년 6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시08분)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개요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9쪽의 2024회계연도 결산 개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과 수입 결산 규모는 총수입 기준으로 총 4조 215억 원이고 세출과 지출 결산 규모는 총 6조 7481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1440억 원으로 정수결정액 1668억 원보다 228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3조 2567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4221억 원 중 938억 원은 이월 되었고 716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493억 원으로 정수결정액 581억 원보다 88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3571억 원으로 예산현액 3889억 원 중 15억 원은 이월 되었고 303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1348억 원으로 정수결정액 1349억 원보다 1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1052억 원으로 예산현액 1297억 원 중 152억 원이 이월되었고 93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총 3조 1852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3조 2984억 원 대비 1132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국가유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유산 총괄 임무를 부여받고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우리 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출범과 함께 국가유산 체계를 전면 전환하고 국가유산 향유 정책 확대와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 그리고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보호와 우리 유산의 세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결산 개관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의 세입과 수입 결산액은 총 671억 원이고 세출과 지출 결산액은 총 1조 3446억 원입니다. 이 중에 255억 원은 이월하였고 282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501억 원으로 정수결정액 705억 원보다 약 203억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조 2390억 원 중에서 1조 1872억 원을 집행하였고 22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64억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정수결정액 27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보호기금 수입·지출 실적입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은 복권기금 전입금과 지정 국가유산 관람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자체수입 171억 원, 정부내부수입 1526억 원, 여유자금 회수 194억 원 등 총 1891억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총 1574억 원, 기금운영비 1억 원, 정부내부지출 56억 원, 여유자금 운용 260억 원 등 총 1891억 원입니다.

정책 추진 성과 그리고 사업별 결산 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 등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겸토보고 순서입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총괄하여 겸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검토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첫째, 불법 사행산업, 불법 저작물, 불법 게임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불법 시장 규모가 연간 약 11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나 불법 게임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이 K-콘텐츠 300조 시대를 이끌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특사경 및 단속 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단속과 환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수지차 보전기관이 자체수입을 늘리는 노력을 하더라도 늘어난 자체수입만큼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예산을 줄이는 구조여서 자체수입을 늘릴 동기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적극 장려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자체수입 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분야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지자체 간 재정 능력 차이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예술인·체육인의 활동 기회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각 사업별로 지방이양의 타당성과 중앙정부 직접 수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재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집행 주체를 재정립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액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총액만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역과 금액을 명기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한 공모사업은 예산안의 심의·확정을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편성 시 지역과 금액을 가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매년 대규모 국제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체육 분야의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라는 일반법이 있는 반면 그 외 분야는 아직까지 일반법이 없어서 각 행사마다 개별법을 만드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각종 국제행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여섯째, K-콘텐츠 300조 시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이끌어야 하나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 인재 확보와 장기근속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수행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인력 유입 및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수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곱째, 우리 위원회 22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부대의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

가유산청은 공무직 인건비를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하여 왔습니다.

다만 공무직 인건비의 기관별 편차 문제가 여전히 있는바 그 해소를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간 인건비 항목 편성의 기준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동일 직무에 대한 급여 편성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은 수입의 약 80%가 복권기금 전입금 등 정부내부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체수입의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하므로 국가유산청은 NFT 도입을 통한 수입 확대 등 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송미술관은 국보인 훈민정음해례본 NFT 사업을 통해 80억 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단말기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있는데요.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의사를 발표하실 분들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체토론에 응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결산 관련 이전에 지난 상반기와 지난해 가을 가장 쟁점이 됐던 사건 2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KTV 김건희 국악공연 황제관람과 관련해서 문화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문화부가 다시 조사하고, 내부조사 하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체부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양문석 위원 언제 정도 나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하반기……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양문석 위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밝혀진 상황에서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는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KTV 저작권 남용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시민 고소 사건, 법원에서 그리고

경찰 단위에서 다 무혐의 처분되거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저작권 남용이라고 하는 희대의 국민 대사기극을 펼쳤던 하종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비호했던 현재의 KTV 사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간부들에 대한 감사는 진행 중입니까? 그것 감사해야 되겠지요?

이미 이 부분도 지난 가을 최고의 문체위 쟁점 사안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화부의 미온적이고 비호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명확하게 그 당시에 문화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작권을 전혀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으로 해석했던 게 있었잖아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와 관련해서 문화부도 이상한 해석을 했고 국회에 나와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KTV는 문화부의 비호를 받는 듯하면서 실제 저작권 남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 안 했고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건입니다.

시간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양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청소년들 마약을 복용하라 이런 광고를 때리면 장관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찾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것과 유사한 게 뭐냐? 부정선거, 불법 탄핵, 반역 헌법재판관 토벌·척결 이런 광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토벌이 뭐예요? 힘으로 쳐 없애 버린다가 토벌이에요. 척결,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가 척결이에요.

헌법재판관을 향해서 끊임없이 협박하는 이러한 광고들이 계속해서 조선일보 하단 광고로 계속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번에 오늘 미국에서 93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했다가 930억 토해 내게 생긴 뉴스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장관 최희영 예, 봤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건 합의의 영역이지요, 미국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보도뿐만 아니고 광고로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어주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도 척결이나 토벌의 수준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문법 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부가 서울시장에게 조선일보의 등록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

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관이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이러한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실어 왔던 조선일보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부의 입장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언론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신문법상 신문의 발행 정지나 이런 등록 취소의 제재 업무는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한번 저도 쟁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청소년들이여 마약을 복용하라’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재판소를 토벌하라. 적결하라’ 이런 광고를 싣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마약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정치적인 언어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이때까지 문화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명확하게 마약범을 옹호하는, 마약범을 광고하는 수준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던 조선일보 광고에 대해서 정확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김승수 위원 오늘 주질의시간이 3분 주어진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예.

○김승수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한 사안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결산, 예결산, 현안질의…… 그동안 저도 5년째 문체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3분의 질의시간이 주어진 적은 처음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결산 때 주질의 7분 또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3분 이렇게 해서 충분한 질의시간이 보장이 됐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중에서 보면 문체위원 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결산과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문체부의 또 국가유산청의 지적사항들이, 특히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여 개 부처, 청 중에서 네 번째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체부보다 지적을 많이 받은 부처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인데 이 부처들은 문체부보다 훨씬 예산액이 많은 부처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결국은 문체부가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그런 부처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산부터 먼저 꼼꼼하게 좀 살펴야지 내년도 예산도 또 상당히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심의가 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추후라도 문체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질의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알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번 회의는 그렇게 정해졌는데 다음부터는 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김승수 위원이 말씀하신 거를 좀 고려해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

○진종오 위원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앞전에 저랑 얘기하셨던 것처럼 생활체육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진종오 위원 생활체육이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문체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진종오 위원 24회계연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은 거 보고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을까요?

장관님, 청문회 할 때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일부 불용액도 발생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가 전국에 2800여 명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마찬가지로 동일 직무에 관한 급여 편성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신입하고 20년 차가 급여가 동일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꼭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별로 다른 곳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해당하나 어떤 지역은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체부에서 한 번 더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관련해서 꼭 저희에게도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산 관련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경북 상주의 씨름부 폭행 사건 얘기 들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는 이거 체육국장님에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체육국장님, 이거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입니다.

○진종오 위원 씨름부 관련해서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종오 위원 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문체부가 알았을까요? 지금 그 사건이 너무 은폐가 돼 있어요. 14살짜리 애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 그런데 자살 시도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뛰어내렸답니다, 아파트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장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보고가 제대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고 하겠으나 장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치가 삽으로 선수 머리를 가격했어요. 이거는 특수폭행이에요, 특수폭행.

장관님, 만약에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건이 교육부도 그렇고 너무 공론화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이 학생을 보호해야 되는데, 문체부가 문화·관광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어요, 조직적으로.

장관님, 이거는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도자 교육, 인권 그리고 체계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너무 놀랐던 사건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영구 퇴출 같은 강력한 대응 방침도 있는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영구 퇴출 정도의 징계뿐만이 아니라 이건 법적 조치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렇지요. 법적 조치까지 가야겠지요.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될 거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부분들이 그동안 미흡했는지 계속 저도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갈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전에 충분히 문체부랑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로드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건지 서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꼭 다시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면……

○위원장 김교홍 예.

○손솔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자살을 시도한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언론상에서도 주의를 하고 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진종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회의록상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만 좀 삭제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진종오 위원 자살이라는 단어보다 극단적 선택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김교홍 극단적 선택으로 바꿔 주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손솔 위원 아파트 관련해서 떨어지는 시도를 했다 관련한 언급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아파트 그 부분도 해서 극단적 선택을……

○진종오 위원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걸로 바꾸면 되고요.

○손솔 위원 예, 그렇게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좀 정정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손솔 위원 저 한 김에 추가로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손솔 위원 오늘 문체위 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벌였던 사업에 대한 마지막 결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쭉 봤을 때 특히 영화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매우 아쉽고 낙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긴급한 지원 조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의도적인 냉대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영화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요. 문화강국에 다시 문화 문외한 정부가 탄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께서 8월 14일에 영화인들 만나셨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영발기금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영화 부과금 수입액이 코로나 이후 엔데믹이 됐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필수적인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입장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지금 현실적이지가 않고 또 OTT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말씀처럼 지금 영화산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아주 중요한 틀이 영화 부과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고 지원 등 다양한 재원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반드시 저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어쨌든 영화 부과금이 중요하긴 한데 계속 어렵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정부 출연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고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거를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게 영화산업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K-컬처 300조 시대의 문화강국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번 결산에서 보면 지난번에 많이 지적되었던 문제들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취소로 인해서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이 낭비된 사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장관님 부임하기 전의 일이지만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다.

K-컬처 300조 시대를 맞으려면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더 넓히고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번에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좀 부당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음번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유네스코 반구대 암각화 문화유산 등재와 그리고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파리 간 김에 런던까지 방문을 해 봤는데 해외 거점의 문화원에 콘텐츠진흥원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계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돼 있어요, 런던은 문화원과 콘텐츠진흥원이나 관광진흥공사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협력이나 시너지가 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파리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 같은 경우는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종학당까지 통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빨길을 하고.

또 파리에 있는 문화원은 우리 정부 재산입니다. 국가 재산으로 돼 있는데 런던에는 전부 임대 방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임대료, 계속해서 요새는 임대료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각각의 분산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세종학당의 경우도 일단 우리 한국 문화의 보급에 의해서 또 지금 외국에 K-컬처, 케이팝의 열풍에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게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결산을 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에 63건이 지정 해제가 됐더라고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부분은 주로 재정 문제에서 연유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그 주변의 정세 불안이나 제재로 인한 자금 이동에 애로가 생겨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세종학당별로 지원 예산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요 세종학당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한 번 만들어진 세종학당이 지정 해제가, 폐쇄가 되면 그 지역에서 신인도가 엄청나게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관리나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이게 상당히, 19세 청년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되는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률을 보면 거의 30%대예요. 작년에 34.3% 그리고 올해 상반기 이용률도 보면 33.9%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한가,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용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 쪽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장르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좀 더 활용도가 높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사용처가 문제인데 그래도 수도권은 50%가 넘어요. 그런데 지방은 사실은 20%대 해당하는 거지요, 수도권이 50%가 되니까. 그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하고 그것은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지방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에서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더 최대한 확보하고 아니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제가 보기에는 체육시설이랄지 체육경기 관람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좋은 취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불용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먼저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

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해마다 반복해서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했고요 벼젓이 집행해서 결산 심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국가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숫자 한 자 바꾸지도 않고 예산을 혀위로 편성해서 보고했고요 문체부는 매년 무난하게 그냥 승인해 줬습니다. 결산도 무난히 통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국립학교 행정이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인 건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예산 심의와 관리 감독 주체인 문체부는 이렇게 부실하게 방임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 하나 보면 열 있다고 했습니다. 소속기관 예결산이 이 모양인데 부처 결산 믿고 저희가 의결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시정하고 관련자 징계를 해야 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채용비리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부정 집행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도 추가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요. 경찰 수사도 들어갔는데요 별개로 당장 조사하고 조치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이미 수사에 들어갔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입시비리 또는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2015년부터 동일한 기사가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카르텔화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살펴서 당장 조사하고 조치를 문체부 차원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도 R&D가 필요한데요, 스포츠 부분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너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7억 원에서 2023년에 139억 원, 2024년에 29억,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요. 신규사업 없이 계속사업도 기간 만료가 됐다 해서 사업 종료가 되고 있거든요. 2022년 207억 원에서 2023년에는 139억, 2024년에는 29억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고 연구과제 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7건에서 4건 이렇게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R&D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수적인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정적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재정적 대책 마련하셔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26년 예산 확보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뛰고 있고요. 관계 부처랑 지금 협의 중인데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다음에 민형배 위원님 하시고 김승수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준비됐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민형배 위원 올려 주세요.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저것 보셨어요? 프리랜서 리허설 도중에 성악가가 저렇게 됐다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 부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산재 언급하고 계시지요. 업무상 상해 경험한 예술인들 산재 처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1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23.5%예요. 정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이 98.1%니까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좀 심각하지요. 거기에다 보상 수준도 평균 지급액이 예술인은 900만 원밖에 안 돼요. 전체 노동자는 1900만 원입니다. 절반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낫습니까, 산재보험 가입이? 그 이유를 꼭 좀 파악하시고요.

저 표를 좀 보시지요. 문체부에서 가입하라고 지난 5년간 4억 2888만 원을 썼어요, 저기 보시면. 그러니까 저거를 차라리 지급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싶을 만큼 홍보는 여러 번 했는데 효과가 없는 상태예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찾으셔서 저희 방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요 언론진홍재단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쭐 텐데 정부광고 1조 310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역매체 집행률이 14.6%밖에 안 됩니다. 너무 불균형이 심하지요. 이것 개선 방안도 좀 고민하여 가지고 저희 방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이버의 뉴스제휴위원회, 지역언론사 굉장히 소외됐는데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음은 31.8%가 지역언론사예요. 그런데 네이버는 1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역이 더 소외되고 더 소멸 위기에 내몰리거든요. 쟁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것 세게 좀 쟁여 주셔야 됩니다. 아까 산재 그다음에 정부광고의 지역언론 소외, 포털의 지역언론 소외 이것 꼭 쟁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결산 검토보고 전문위원께서 한 것 중에 여섯 번째 보시면 우리 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 인재 확보와 장기근속 유인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요즘 블로그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직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부처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세청의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면 연말에 상여금을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다

거나. 저희 공공기관 내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당장 이것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니까 진짜 자기를 완전히 바쳐 가지고 하는데 성과가 저렇게 나는데 보상이 없어요. 그것도 열른 대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방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옛그제 광복절이었고 문체부 주관으로 광복절 행사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김승수 위원 한 13억 들여 가지고 광복절 전야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한 이틀 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사망자도 여럿 발생하고 수백 명의 이재민,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축제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80주년이라는 큰 취지에 궁지를 느낄 수 있는 행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매 10주년 단위로 문체부에서 크게 전야제 행사를 해 왔었고 이번에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극심한 수해 상황에서는 좀 행사 자체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더 황당한 것은 유사한 행사가 거의 동일 시간대에 국회에서 벌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사전에 문체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문체부와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행사는 이미 작년 예산에 책정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행사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굉장히 유사한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행사를 보면 전혀 문체부와 협의도 없었고 또 국회가 사실상 주관하면서 그 예산을 보훈부를 끌어들여 가지고 보훈부 예산을 씁니다. 국회에서 투입한 예산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훈부에서 받아 가지고 투입한 예산은 6억이 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구두로 보훈부에 행사에 돈을 보태라 해서 공동 주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행사를 했는데 참가관인 것은 행사 시간도 똑같고 그리고 다 녹화방송으로 지상파에 방영이 됐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MBC, SBS로 나눠서 방영이 된 겁니다. 이게 광복절 전야 행사, 국민들한테 광복절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 이렇게 분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문체부의 공익적 행사 취지가 훼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훈부를 끌어들이면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투입했는데, 언론재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렇게 보훈부에서 언론재단의 광고 예산으로 6억 이상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재단에 승인 신청을 한 것은 불과 행사 이를 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시간대에 동일 내용, 굉장히…… 6억을 투입하면서도 정부광고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사의 녹화방송 시간도 11시가 넘어서 방송됐고 그것도 문체부의 행사하고 동일 시간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언론재단에서 광고 승인 들어올 때 체크를 해서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재단이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이거는 8월 11일 날 광고가 처음 들어왔는데 원래는 일주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김승수 위원** 이게 지금 광복절 행사가 갑자기 벌어지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행사를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광고 예산으로 신청을 했고 쓴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게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하고의 용역계약 이런 것들이 광고 승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진행이 됐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절차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결산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관님이 정부 대변인 아닙니까. 또 국무위원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사한 정부 행사가 이런 수해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셨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 또는 중복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회 행사는 사실상 케이팝 콘서트입니다. 어쨌거나 두 개 행사에 22억 가량 쓰였는데 정부광고 효과 굉장히 반감시킨, 정말 이거는 나중에도 반면교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그런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장관님, 지난 8월 13일 날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지요.

국정기획위 발표를 통해서 아마 국정과제 중에 저희 소관 상임위 내용으로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 산업 육성을 얘기했습니다.

그중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영상, 음악, 게임 등 K-콘텐츠 핵심 장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정연욱 위원 그런데 동시에 누가 뭐래도 지금 K-콘텐츠, K-컬처 300조 원 시대, 정부가 공약하고 저희도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0일 날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중에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신설됐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강조했던 게임, 음악 분야는 여전히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아예 사각지대로 빠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은 나오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K-컬처 300조 시대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곁과 속이 완전히 다른, 부처마다 의견 다르고 자기만의, 부처만의 논리에 빠져 국정기획위, 전체를 아우르는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시기에 이렇게 엇갈린 태도가 나온다면 이 정부의 K-컬처 300조 시대를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야가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게임 쪽에서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세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소관 저희 상임위 분야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저희도 관련해서 관련 토론회나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법화시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거였는데 이 정부에서 초기에 부처마다 의견 다르고 이거를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발표도 엇갈려 버리면 K-컬처 300조라는 게 또 결국은 빈말로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 발표한 K-컬처 300조 그다음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얘기가 있지요. 문체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저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간 안이고요.

○정연욱 위원 저는 실무적으로 얘기 듣기로 그런 소통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고요. 실제로 300조, 3000만 이라면 숫자로서는 상당히 그럴 듯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과연 문체부의 실무 검토와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냥 숫자만 덩그러니 던져 놓은 것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부처마다 얘기가 달라지고 이게 기재부 얘기 다르고 세제개편 다르고 지금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게임·음악에 대한 필요성은 얘기하고, 이런 엇박자 나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실제 국정위 안건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면 앞으로 모든 얘기들은 정부 발표 따로, 실제 내용 따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안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보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향후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일관성이라든지 정책 기조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당장 밝힐 수는 없으시겠지만 문체부나…… 어찌 됐든 K-컬처 산업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할 부처는 지금 장관님이 주도하시는 이 문체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나름대로 복안이나 큰 그림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일부는 이미 구체화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혹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작년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도 꼭 되풀이되는 게 항상 이런 식입니다. 더 이상 이런 되풀이되는, 헛바퀴 도는 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예산편성의 의도와 다르게 다 집행이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예산들의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업이지요. 사업의 취지는 대단히 훌륭했고 또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 실집행률이 21%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확대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장관님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용처가 확대는 돼야 되겠지만 애초의 정책 취지인 순수예술에 대한 이용 활성화가 사업의 취지였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청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라든지 축제 그리고 인터랙티브(interactive) 전시 등 다양한 형식의 우수한 공연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지방의 소외입니다. 지방은 이런 공연이나 전시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고 청년패스가 실제로 사용되기 어려운 조건들인데 순회공연 같은 경우도 문체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예산집행률을 제고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공연법 개정이 되면서…… 공연장에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1000석 이상의 공연장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무대와 그리고 관객 사이에 만들어서 초기 화재에 있어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됐고 26년 5월까지 반드시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1000석 이상 규모의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는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취지는 좋았지만 집행률은 현저히 저조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4억 75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남았지요. 그런데 6억 1500만 원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4.8% 집행률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저도 예측하기에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협의하고 기한 내에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K-컬처 시대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많은 공연장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이 관리의 책임은 문체부가 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1000석 미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0석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10% 미만이고 대부분 1000석 미만의 국공립 공연장들이 즐비하게 있을 텐데 이 10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도 충분히, 1000석 이상을 먼저 하더라도 이후에도 안전보강 대책 관련돼서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님들만 안 하셨는데 하실 거예요?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장관님, 제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에 있어서 좀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느 부처보다 문체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토론, 논의, 현·전·미래의 방향성까지, 저희는 실천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행과제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 무리수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별씨부터 공무원들이 ‘논의 없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장관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꼭 김효재 이사장님에게도 저는 한말씀 듣고 싶어요. 정부광고 집행 관련 돼서 앞서 민형배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작년까지 김효재 이사장님은…… 아직 제가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다고 그랬지. 김효재 이사장님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다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셨지요,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는, 원인 제공은 혼자 다 하셨고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부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광고 집행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2024년도 결산인데 장관님께 제가 또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KTV가 23년·24년에 전례 없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황당한 황제 관람부터 시작해서 수의계약 쪼개기식으로 해서, 국악 공연도 있었고 소록도 작은 음악회도 다 수의계약 쪼개서 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셔서, 저는 김건희 한 사람을 위해서 기획되고 혈세가 낭비된 이 두 공연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저는 이것…… 자료 요청에도 한 번도 위원들에게 제대로 자료제출 한 적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진상 제대로 밝혀내셔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함, 답답함을 다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5년도 예산도 윤석열 정부에서 다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1분기 지났고 2분기 예산 제대로 잘 편성하셔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 보고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문제없는 결산 보고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데 위원장이 잠깐……

○민형배 위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꼭 해야 돼요.

○임오경 위원 저 답변 한번 들어야 되는데, 김효재 이사장……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김효재 이사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임오경 위원님 지적하신 정부광고 문제는 가장 큰 오해가 저희들이 정부광고를 분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닙니다. 정부광고는 광고주인 정부와 광고매체 간의 관계이고 저희들은 그걸 중개하는 중개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광고의 선택, 어느 매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매체들이, 지금 매체가 신문……

○임오경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고요. 올해 27억 반영시켰던 지방방송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15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임오경 위원 밑의 직원들에게 다 답변하게 하지 말고 이사장님의 직접 답변해 보시라고요, 그것 관련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면 지금 지방방송……

○임오경 위원 그게 개선이라고 지금 내놓으셨잖아요. 그걸 제대로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지방방송 지원책 말씀이십니까?

○임오경 위원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꾸준하게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진흥기금에서…… 그동안은, 신문법에 의존한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신문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방방송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된 게 아닌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물론 그쪽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방방송에 어떻게, 지역방송들이 어떻게 수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실무자들과 함께 지금 논의 중입니다.

○**임오경 위원** 로드맵 만들어서 저희가 결산 의결할 때 그때 제출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추후에 우리가 결산 전체회의 한 번 있을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때 또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하 위원님 말씀하시고 민형배 위원님 추가질의 이렇게……

○**박정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큰 틀만 여쭐게요.

작년에 전임 체육회장 당시에 체육회 예산 10% 정도를 직접 교부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문체부하고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신임 유승민 체육회장은 과거 제도로 환원을 또 요구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하고 체육회하고 협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두 기관이 얘기를 하고 끝나고 있는 건가요? 기왕에 어쨌든 정부 방침은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현행 바뀌어진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체제 개편의 효율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효율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외부기관이요? 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연구기관 쪽에서……

○**박정하 위원** 연구기관요, 외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외부요.

○**박정하 위원** 언제 나오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게 한 9월쯤에 나올 것 같고요.

○**박정하 위원** 9월 경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바뀐 체계가 더 나은 거면 그렇게 뭔가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아니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연구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9월에 중간평가를 반기로 해서요 그 내용은 나오면 한번 말씀을 다시……

○**박정하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한국스포츠과학원. 여기는 우리 정부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독립된 외부기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박정하 위원** 산하기관.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부분은 중간평가를 한번 보면서, 타당성 있는 입장의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중간평가 나오면 한번 말씀 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비슷한 건데 체육회에 직접적인 광고·후원 이 문제도 큰 틀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체육회장이 또 정계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체육회는 계속 열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부는 아닌 입장인 거지요? 그게 효율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부 입장은 어떠신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박정하 위원** 그 평가도 이번 용역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별건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용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정하 위원** 그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김효재 이사장님, 요즘 수고가 많으시지요? 마이크를 좀 받아 주십시오.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하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민형배 위원** 이재명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도 하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명박 대통령……

○**민형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도 하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민형배 위원**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도 하셨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렇게 공직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른바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하고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근본적인 취지에 저는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동의하셔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 취지대로 하자면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 전 정권의 공공기관 이사장, 공공기관 기관장분들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제를 정할 때 그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국민들이 그 공공기관장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정부가 바뀌면 공공기관장은 같이 바뀌는 게 맞다라는 입법을 해 주시면 저는 그 법에 따릅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것은 입법의 문제이고요. 그냥 도의적으로 혹은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철학과 다른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장을 맡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정권의 철학과는……

○민형배 위원 아니, 처신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느냐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처신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냥 의견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까 맨 처음에 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같이하는 게 어떠냐,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정병국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국회의원도 하시고 방통위원장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지금 제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기를 대통령 임기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를 같이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동의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가 물려 있는 분들, 중간에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은 어떤 처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는 임기 동안에 기관의 지속성이라든가 해 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황이 다 다르다고 봐요.

○민형배 위원 철학에 안 맞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제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정권의 철학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을 해 왔고요.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까지만 하시지요. 김승수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도 하시고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다음번 회의 때 조정하는 걸로 하고……

○**김승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진짜 일요일까지 밤을 새워 가지고 한 것의 10%도 질의를 못 한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건 정확하게 시간 내에 하시는 게 맞지 계속 추가에 추가질의하면.....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다니까요, 3분밖에 안 준 경우가.

○**위원장 김교홍** 알았어요.

○**김승수 위원** 7, 5, 3 계속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위원장 김교홍** 7, 5, 3은 의사를 계속 정식으로 진행할 때 7, 5, 3을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결산 때.....

○**김승수 위원** 결산 의사를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이게 처음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김교홍** 결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협안질의를 넣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러면 3분만 하시고 손솔 위원부터 먼저 하시고 김승수 위원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추가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 재생이 될까요?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원래는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손솔 위원** 아, 영상 재생.....

○**위원장 김교홍** 영상을 틀 때는 여야 간사가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다음에 하시지요.

○**손솔 위원** 그러면 영상은 생략하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충북인뉴스에서 친일파 후손이 물려받은 땅을 직접 찾아내서 언론보도를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관련 기자, 편집자께서 등본을 다 떼는 작업을 하면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 확인을 했던 거거든요. 관련된 뉴스 영상을 준비했는데 가난한 신문사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돈이다, 지역언론 차원에서. 그런데 중앙언론에서 하지 않지만 지역 차원에서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을 직접 비용까지 부담을 하면서 지역언론에서 역할을 해 주신 일입니다. 이게 8월 13일에 광복 80년 기념으로 보도가 됐던 거거든요, 친일파 후손의 땅을 추적한 보도에 관련해서요.

이런 일들을 지역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되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도 기금 설치나 조성에 관한 데에서도 정부출연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 24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0원이 됐어요. 2014년 이후로 1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 삭감을 한 겁니다. 지역신문이나 언론 발전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전 정부에서 줄이고 삭감된 출연금인 만큼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부출연금을 되돌려야 하지 않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 부분이 줄었다는 것 잘 인지하고 있고요. 이게 지역신

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인데 언론진흥기금과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해서 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기금의 타당성, 효용성 이런 것들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를 쓰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기금 전입금 자체가 들쑥날쑥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역신문 차원에서는 대단히 불안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회복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도 문체부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전체 집행률이 한 94.4% 정도 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한 95.2%, 지특회계가 91.8%인데 아특회계는 81%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시작된 지 2004년부터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광주가 민주화의 도시고 대구와는 달빛동맹 도시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보면 수십 개씩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가 없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업들이 아주 대다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면 실제 실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5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0%인데 그 5개 사업의 총사업비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0% 사업까지 나오느냐, 이것은 애초에 사업 구상 단계로부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특히 보면 국회에 와서 증액된 사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회에서 정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왜 지금 20년이 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또 아시아중심도시로서 확실하게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진단해 보시고 뭔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문화패스·쿠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마는 집행률 3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지적했던 어르신 스포츠 쿠폰 또 장애인 쿠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방이 매칭이 안 되고 있고 또 실제 사용하고 싶어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문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소년 예술패스는 올해 처음 실시된 것인데 농어촌 지역은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문화예술 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도 실제 해 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플랫폼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부익부·빈익빈, 지금 스포츠 쿠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지방이 매칭해야 되거든요. 기존에도 이걸 매칭할 돈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소비쿠폰 하면서 시도 같은 경우에 한 200억 이상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칭 비용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매칭해 줬던 이런 문화예술 또 스포츠 쿠폰조차도 지금 지방에서는 매칭할 여력이 없다고 못 하겠다고 손 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굴러 온 돌이 고인 돌 다시 뽑아내듯이 실제 이용하고자 했던 이런 쿠폰들이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돈으로 다시 쓸려 나간다는 거지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쿠폰에 대한 매칭을 조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지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고 하반기라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요건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다 마쳤고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현안질의를 오늘 안 하고 대체토론과 현안을 섞어서 토의를 한 것은 장관과 차관이 이제 임명이 되어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토론 때는 좀 더 준비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임오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KTV 황제 관람 부분은 꼭 문체부에서 짚어 주세요. 이것은 국민적인 의혹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콘텐츠진흥원의 해외 거점 비즈니스센터 통폐합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국어학당도 있는 데는 좀 많고 없는 데는 거의 하나밖에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문체부의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장관님 이것 꼭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종오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한 학교에 한 스포츠 또 학생 일인당 음악이나 예술 특기를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문체부에서 좀 더 강하게 시도를 하려면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예우 이게 정말 심각해요. 이것은 정말 장관님께서 딱 틀을 잡고 한번 제대로 이번 기회에 예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각 시군구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굉장히 보수가 또 열악해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줘야 뒷받침될 수 있다. 그다음에 학교 예술강사들, 이번 결산 문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예산 삭감되면서 지원이 미비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돼야지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데 중심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관님께서 잘 짚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체위 산하의 공공단체의 기관장이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뒷받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장관님이 원래 문화예술의 산업화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그걸 잘 짚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올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8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날인 8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결산 등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박수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서면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우선 저 위원장과 임오경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손솔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희영 문체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문화예술법안심사(9인)	박수현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조계원	더불어민주당(5)
	배현진 정연우 조은희	국민의 힘(3)
	손 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체육관광법안심사(7인)	민형배 임오경 조계원	더불어민주당(3)
	김승수 ◎박정하 진종오	국민의 힘(3)
	김재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심사(9인)	민형배 ◎박수현 이기현 임오경 조계원	더불어민주당(5)
	김승수 정연욱 진종오	국민의 힘(3)
	김재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5인)	김윤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2)
	◎배현진 조은희	국민의 힘(2)
	손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3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손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첨가 위원(3인)

김윤덕 배현진 조은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희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윤양수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공형식
소통지원관 정태경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강수상
체육협력관 최성희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이은복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자연유산국장 김동대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7)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2025. 7. 29.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2)

이상 3건 7월 30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5)

7월 31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2)

8월 1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7)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5. 박경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

이상 2건 8월 6일 회부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3)

이상 2건 8월 8일 회부됨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5. 8. 8. 최형두 의원·박수현 의원·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8)

8월 11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0)

8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7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4. 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8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7호	2025. 8. 4.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75호	2025. 7. 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676호	2025. 7. 29.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77호	2025. 7. 29.	문화체육관광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78호	2025. 8. 1.	국가유산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688호	2025. 7. 3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689호	2025. 7. 31.	문화체육관광부